

탐방 하이텔 칠연회

“사이버 접속 ‘PC불심’ 나뉘요”

“관세음보살님, 정신적 육체적 장애와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용기와 지혜가 증만하도록 자비의 미소를 보이소서.”

11일 밤 신안진 보현불교대학 수련장.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하이텔불교동회(대표이사 김주서·이하 하불동) 소속 칠연회(회장 이승덕) 회원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장애불자 박종필(24·ID: CAPBOY77)씨가 직접 쓴 발원문을 낭독하며 ‘참 불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서원했다.

칠연회는 장애불자 50여명과 자원봉사자 500여명으로 구성된 하불동(전체회원은 3500여명)내 최대의 전국구임. 이날 모임은 칠연회의 제6회 전국모임 및 수련회로서 장애회원 15명을 포함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말이라 교통이 막혀 1시간 늦은 저녁 8시 저녁공양을 시작으로 수련회가 시작되었지만 피곤한 기색도 없

이 평소 컴퓨터 ‘접속’을 통해 악취 사귀어 온 법우들과 정담을 나누기에 여념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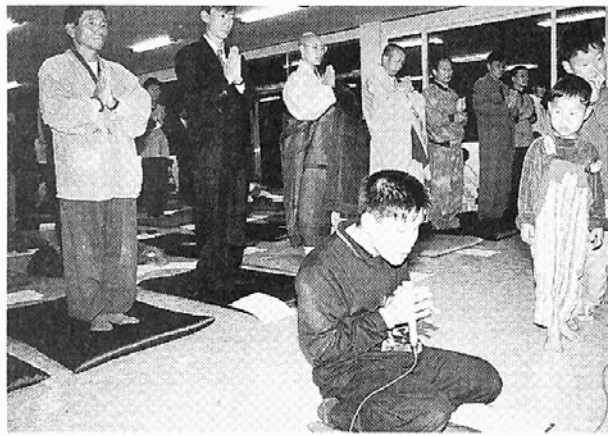
9시부터 시작된 예배에는 몸이 불편한 회원들도 한마음으로 정성을 모았다. 이어 장애법우들을 돕기 위

장애인·봉사자등 회원 5백50명 경조사·수련회 통해 신뢰감 다져

한 경매코너에는 차(茶) 수석 그림 조각품 찻상 화장품 등 30점의 물품이 나와 81만원에 경매되었다. 이날 모금한 액수는 경매금과 지도법사인 서울 보문사 주지 정진스님과 성우스님(안국사) 등의 보시금을 포함한 238만원. 장애법우들을 위한 통신비 지원과 법회 운영기금 등으로 쓰이게 된다. 10시30분부터는 레크리에이션 시

간. 장애법우들을 등에 태우거나 안고 달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어 자정부터 새벽 1시까지의 촛불간음탑들이. 이날따라 유난히 밝은 달과 별을 보며 관음정경으로 번뇌를 씻어내린

시간이었다. 칠연회(초대부장 강기택)가 결성된 것은 지난 95년 3월. 한 장애불자의 ‘우리도 절에 가서 법문 듣고 싶다’는 작은 소망으로 시작, 7명의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이 힘을 모아 신행을 펼치자는 원력을 받으며 PC통신 내 가장 특색있는 모임으로 성장했다. 평소 통신을 통해 부처님 법을 배우고, 서로의 경조사를



11일 신안진 보현불교대학 수련장에서 열린 칠연회 수련회에서 장애불자 박종필씨가 발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행기는 등 신뢰를 쌓아온 회원들은 1년에 두 차례 이상 생활에서 부처님과 회원들의 얼굴을 본다. 모임이 있을 때면 승용차가 있는 법우들이 집에서 행사장까지 데려다 준다. 지난해부터는 칠연회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일반 불자들의 가입이 더욱 늘고 있다. 김성린총무는 “불교동호회에 가입

한 회원들의 80%는 PC통신을 통해 비로소 불교와 인연을 맺는다”면서 “장애법우와 불교동호회 회원들이 서로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한마음이 되는 이 공간은 PC통신 포교의 사이버 법당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진=김재경 기자



백양사에서 ‘청정운동실천’ 전국대회

청정운동추진위원회(총재 서돈각)는 12일 백양사에서 청정운동실천전국대회를 개최했다.

천운 대둔사주지, 지신 백양사주지스님을 비롯 김홍식 장성군수등 사부대중 1천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는 백양사 경내 정화활동, 백암산일대 자연보호표지판 설치, 자연과 인간의 공생원리 강연(박성배 동국대 석좌교수), 국악한마당 등이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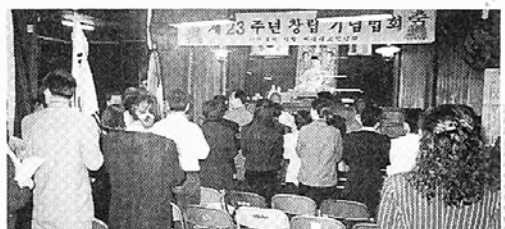
대전·충청지역 포교지단 발대식

올 하반기 조계종 포교사연수교육이 12일 대전과 전주에서 실시됐다. 대전중앙불교대학에서 실시된 연수교육에서는 대전·충청지역 포교지단 발대식도 갖고 지단장에 철승스님(마곡사 주지)을 추대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포교원장 성타스님을 비롯 충청지역 포교사 70여명이 참석했다. 포교사교육은 19일 서울 조계사, 대구 동화사에 이어 26일 동래 법륜사에서 실시된다.



불광사 창립23돌 기념행사 다채

불광사·불광법회(법주 광덕스님) 창립23주년 기념법회가 12일 서울 석촌동 불광사에서 3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1부 법요식은 불광법회 초대회장 한담스님의 기념사, 조계종중앙총회 의장 설정스님의 격려사, 부법주 지환스님의 법어, 주지 운암스님의 축인, 공로패 수여 및 유공자 표창, 학생글짓기·사생대회 시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2부 기념행사는 바리밀장터로 꾸며졌다.



서울불청 창립 23돌 기념법회

대한불교청년회 직할 서울불청년회(회장 김인택)는 10일 조계종 불교회관 1층에서 제 23주년 창립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도문스님(대각사 주지) 법현스님(천중사 부주지) 덕신스님(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국장) 이상변 불청중앙회장 등 5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으며, 이성현 정찬근씨가 각각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불청중앙회회장을 수상했다.

청소년불자 3천명 탄생한다

광주전남교사불자회 26일 수계법회

지역불교 11개단체 후원

영남에 비해 불교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호남에 불교중흥의 서풍이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교사불자모임(회장 김진택·전남여상고 교사)이 26일 무각사 잔디밭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여는 ‘광주·전남 청소년 불자 합동 수계법회 및 축제 한마당’을 통해 3천여명의 청소년 불자가

새로 탄생된다. 대둔사 주지 천운스님을 계사로 봉행되는 이번 수계법회에는 초·중·고등학교 불교학생회 및 사찰 중·고등부 학생회 회원들과 지역 문화단체, 일반불자들이 대거 참석하게 된다. 지역불교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이번 법회에는 광주불교사업연합회 광주불교승보회 광주불교승인회 등 11개 단체가 후원하고 있으며, 다정스님(나주 문성암)이 특수제

작한 관음보살목걸이 3천개를, 능인회가 단주 3천개를 보시하고 영조(광주불교교육원) 박사(천용사)스님이 후원금을, 모 보살이 3천원 분량의 떡을 보시하는 등 지역불교계가 모처럼 한마음이 되어 청소년 포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날 수계제자 중 70명에게는 장학금 700만원을 나눠주고, 광주청년회 밴드부의 공연등 청소년 축제 한마당도 펼쳐질 예정이어서 교육계의 관심도 끌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교육청과 서울·경기지역교사불자회 관계자들이 참관한다. 수계를 원하는 청소년과 학부모는 참가 가능. (062)525-8662

우리 모임에선

경주 정각원 1천명 수계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원장 도업)은 22일 오후 3시30분 교직원·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동국대 수계대법회를 연다.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을 계사로 열리는 이번 법회에는 호생 600명등 1천여명의 불자가 수계받는다. (0561)770-2016

청주신행회 미평고 위문

청주불교신행회(회장 신호식)는 25일 미평고등학교(舊 청주소년원)를 방문, 불교학생회(지도법사 박종) 회원 80명과 함께 법회를 봉후 간식을 나눠주며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매월 셋·넷째 토요일 소년원을 방문, 간식을 제공하고, 매주 일요일 불교학생회 법회를 지원하고 있는 회회는 회원 250명을 6개 구역으로 나눠 무의탁 독거노인 집을 방문,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0431)53-3882

대전문화회 복지회관 지원

대전문화회(회장 박영조) 회원 40명은 15일 한마을복지회관을 방문, 세탁기등 2백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한편 대전문화회는 24일 여수 향일암으로 사찰순례를 떠난다. (042)626-6463

대광맹인회 50명 수계

대구대광맹인불자회(회장 박석규)는 10일 자재법당인 광명사에서 창립6주년 기념법회 및 제3차 보살계 수계식을 봉행. 이날 법회에서는 지도법사인 만권스님과 맹인불자 가족 등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했으며 50명의 회원이 보살계를 받았다. (053)253-0755

원각사청년회 18돌 행사

광주 원각사 불일청년회(회장 김중주)는 24일 오후7시30분 고려시멘트 2층 신명아트홀에서 창립 18주년 기념 원각회의 밤 행사를 갖는다.

이날 법회에는 서울 조계사청년회와 교류법회도 가질 예정이다. (064)223-3168

우리는선우 정기수련

우리는선우(이사장 남지심)는 25, 26일 양일간 김제 금산사로 가을 정기수련회를 떠난다. 이번 수련회는 결사선우 증명식과 도법스님의 법문, 분과별 토론, 익산 미륵사지 참배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회비는 4만5천원. (02)278-8672

부산불교연합회 생활비 지원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백봉도) 창립9주년 기념법회가 16일 코모도 호텔 충무홀에서 정관 전 범어사주지, 해충 부산불교연합회 부회장 등을 비롯해 4백여 운전불자회 회원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동구의 이용수 할아버지를 비롯한 15명의 노인들과 감천중준복지도인대학 시설비 지원 등 총 3백3십만원을 전달했다.

부산불교의 현시점을 살펴보고 미래의 모습을 조명해 보는 세미나가 마련돼 관심을 끌고 있다. '21세기 부산불교 중흥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22일 국제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불교세미나가 바로 그것. 부산불교신도회 주최, 부산불교교육대학 주관으로 열리게 될 이 세미나에서는 ‘출가자와 재가자의 바람직한 역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찰의 공간 활용’ ‘부산불자들의 신행현황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각각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21세기 부산불교중흥방안' 세미나

이들 주제발표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장광명(말암사 포교당)법사의 '부산불자들의 신행현황과 개선방안'. 부산불자들의 신행태도와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그 통계계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사기획

“수행력 갖춰야 부산불교 발전”

기복팔피·가족포교·경전읽기 등 제시

상의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부산 불자들의 신행태도를 가늠케 할 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일반인, 불교청년회 소속회원, 불교지도자,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연령별 불교신행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불교를 믿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60대 이상의 연령은 복을 받기 위해(48%)와 20~40대는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전체응답자의 7%에 불과했다. 부산불교의 미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 이상이 희망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21

Advertisement for '유료양로원 입주자 佛子5명만 찾습니다.' (We are looking for only 5 Buddhist children to live in the paid nursing home). Includes a large image of a building and a map showing the location in Seoul.

Advertisement for '천마산수진사 대한불교총화종' (Cheonmasan Sujin-sa, Daehanbuddhism Total Synthesis). Includes text about the temple and a map showing its location in Cheongju.